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교사 운동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 교사집회'는 거대한 대중 운동으로 발전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가고 있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두 달도 안 돼서 집회 규모가 40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이다. 9월 4일까지 집회 규모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넘는다. 국내 유·초·중등 교사 수가 5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숫자다.

매 주말 집회마다 수만 명이 참가한 것도 대단하지만, 단체 행동권(파업권)이 없는 교사 10만여 명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었다.

교사 운동은 요구를 당장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대중 운동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낳고 있다.

첫째, 교사들이 겪고 있는 온갖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부각시켰다. 교권 보호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형성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많은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9월 4일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모들 다수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교권 보호는 보수적 요구라며 교사 운동에 거리를 두던 일부 좌파들도 운동이 지속되고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자 지지 입장 발표나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투쟁을 통해 얻은 노동자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운동에 참가한 많은 교사, 특히 청년 교사들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한 것일 수 있다. 대규모 운동을 통해 교사 노동자들도 단결해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권의 보호자가 아니라 침해자라는 점을 깨닫고, 교사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교육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랐다. 운동이 확대하면서 조직화도 성장했다.

셋째, 9월 4일 집단행동은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윤 타격이라는 산업적 효과는 미약할지라도, 단체 행동이 금지된 교사들의 집단적 연가투쟁은 정부에 맞서는 정치적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교사 운동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등 고무적 효과를 냈다. 특히 교사와 비슷한 처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을 고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전반적인 계급투쟁과 세력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등 교권 침해 논란이 있는 데다 당장 교사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대규모 교사 운동이 낳은 효과 중 일부다.

특히, 9월 4일 집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드러났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혼란 초래 책임 회피 이주호는 반성하라.” “징계 운운 권한 남용 교육 분열 이주호는 사과하라.” “직권 남용 이주호

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 교육부와의 교섭에 교원 단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9월 4일까지 규모를 키우며 달려온 교사 운동은 잠시 숨을 고른 후 9월 16일 주말 집회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 운동을 이어가야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치른 뒤에도 계속되는 교사들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교사가 현실을 바꿀 때까지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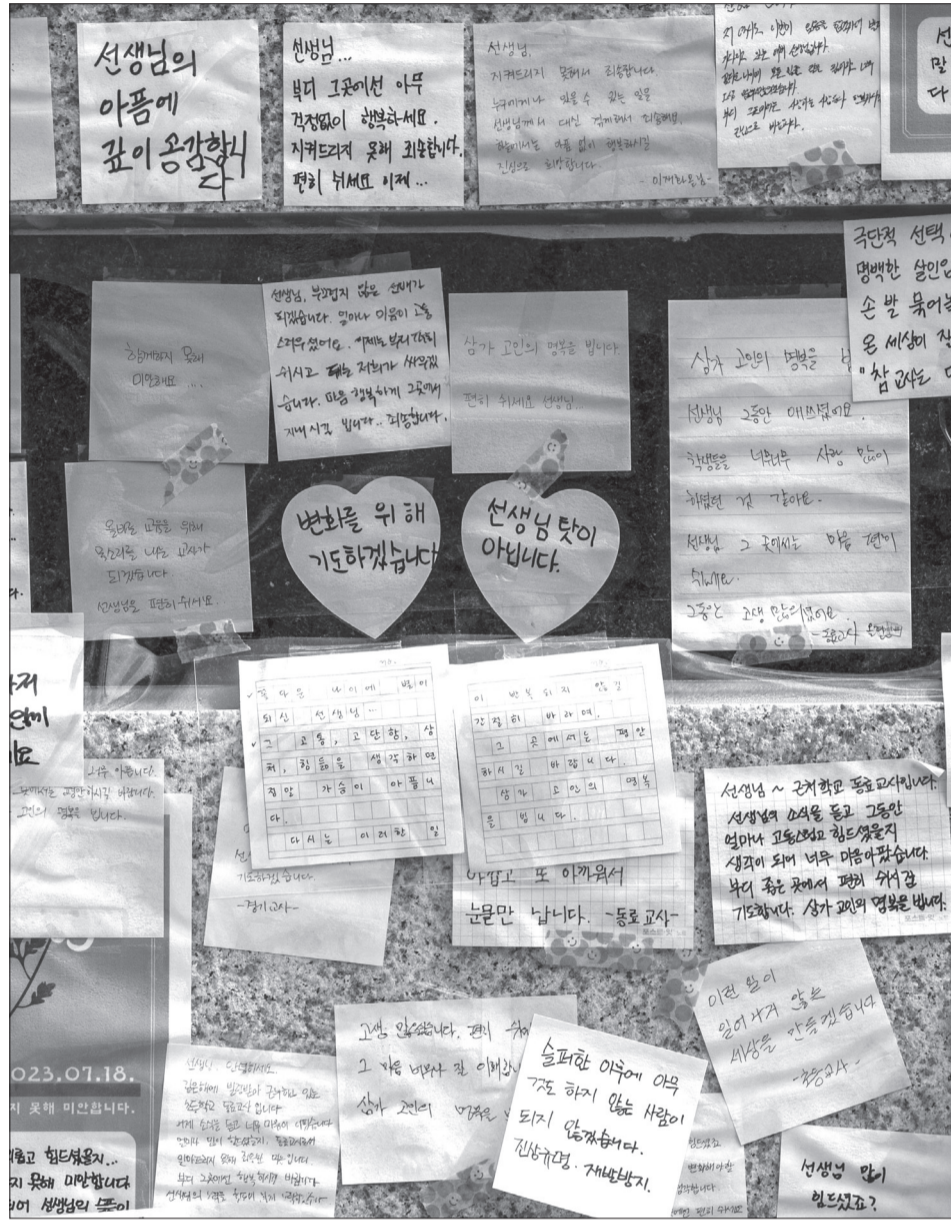
운동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의 바람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교사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 정부가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보호 및 교권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바뀐 것이라고는 학교 전화 통화 연결음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린다.

오히려 현장의 문제만 더 키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령 학교에서는 당장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재정과 인력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일부 고충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법령과 제도 정비만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어렵다(물론 법안이 제대로 개선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예컨대,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지금 교사 운동은 '교육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의 고통은 '교육권'으로만 표현될 수 없는 많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들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교육권 보장을 넘어 교사의 조건



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안이나 방안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교원 감축, 재정 삭감 등 되레 교사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를 더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문제

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 심화에 직면해 긴축 정책을 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양보를 얻어 내려면 만만찮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로부터 개혁 조처를 얻어 내서 교사들의 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교사의 위기는 자본주의 학교 시스템의 본질에서 비롯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다. 자본주의 경쟁 교육은 교사·학생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양산한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국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학교는 점점 더 교육이 불가능한 곳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권 위기 문제를 체제의 문제와 연결해서 봐야 하고 그래야만 온전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의 불만이 크고 개혁을 위한 열망도 작지 않아 운동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월 4일을 기점으로 운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하다. 예컨대, 법 개정 이후에는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운동 참가자 다수가 '법 개정'을 향해 달려온 터라 이번 운동으로 무엇을 얻었는지부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운동이 터져 나온 초기에는 광범한 단결을 이루는 듯하다가도, 운동의 국면이 바뀌면 참가자들 사이에서 투쟁 방법이나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애를 쓸 것이다. 이 시점부터는 운동의 성장을 위해 더는 정치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껏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이번 교사 운동은 교사의 위기뿐 아니라 총체적인 공교육의 문제를 드러냈다. 교사 운동의 잠재력을 제대로 현실화하려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더 분명히 제시하며 교사들의 집단적 힘으로 그런 지원을 쟁취하려고 해야 한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구독
- 👍 좋아요
-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홍범도 홍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9월 20일(수)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920-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추천 동영상

18분

초등교사 사명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명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youtube.com/watch?v=TeAD45wT1iA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